

자문위원 의견서

연구명 :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

연구기간 : 2019. 04. 17 ~ 2020. 01. 11 회의일자 : 2019. 12. 20(금), 오후 1시 00분

회의장소 :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회의실

- 자문위원의견
- 근대유적 등 사유부속은 1945년으로 하기 보다는 1950년대 이후로 하여 신빙성있는 채형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청된다.
 - 단성지막이 대한 개포 등 지하층이 개포된 곳이 대한 매장문화재 지하는 매우 적정하진 않다고 판단된다.
 - 근대유적 자료 등 사유부속이 있는 곳은 개포가 부족한 것이므로 토지층의 진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. 그러므로 근대유적에 대해서는 적정적인 번성사가 요청된다.
 - 마포구와 성동구의 강변지막이 대해서는 지대가 낮아 복토, 매립된 곳이면 매장문화재 진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.

자문위원 : 김 계옥 (서명)

한울문화재연구원